

‘마쓰시타 정경숙(政經塾)’ 의 실상

마쓰시타 정경숙 1회 졸업생인 노다 요시히코씨가 신임 총리로 선출되고 또 이곳 출신 정치가들이 대거 등장하자 마쓰시타 정경숙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쓰시타 정경숙의 독특한 교육이념인 先驅開拓, 自修自得, 現地現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

□ 총리까지 배출한 마쓰시타 정경숙

- 일본 신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마쓰시타 정경숙 1회 졸업생이어서, 최근 일본에서는 마쓰시타 정경숙이 주목받고 있음
- 총리뿐만 아니라 겐바(玄葉)외상, 마에하라(前原) 전외상 등도 마쓰시타 정경숙 8회 졸업생이며, 2010년까지 졸업생 248명중 112명이 정계에 진출하였고, 현재(2012년 7월 12일)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현의원 30명이 이곳 출신이어서 이번 정권을 ‘정경숙 정권’ 이라고도 함

□ 마쓰시타 코노스케가 일본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

- 마쓰시타 정경숙은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쓰시타 코노스케氏가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영을 추진해 나갈 지도자를 육성” 하기 위해 1979년에 私財 70억엔을 투입하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 입숙 조건은 22-35세로 대학졸업자가 대부분이며 연수기간은 3 년 (창설당시는 5년)으로 매년 150명 정도가 지원하지만 서류심사와 3번의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5-6명을 선발
- 연수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연수비용뿐만 아니라 매월 25 만엔의 생활비를 받으며 운용자금은 설립자금의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파나소닉社와는 재정적인 관계는 없음

□ ‘先驅開拓’, ‘自修自得’, ‘現地現場’ 이 주요 교육이념

- 先驅開拓은 “既成에 얽매이지 말고 시대를 앞서가는 끊임없이 창조·개척해 나가라”는 의미인데, 幕末期에 일본을 유신으로 이끌기 위해 활약한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가 롤 모델
-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3반” 즉 地盤(선거조직), 看板(지명도), 가방(자금)이 필수라는 최근 일본의 정치풍토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지망생들에게 마쓰시타 정경숙은 매력적으로 비치고 있음
- 노다 총리도 자위대원의 아들로 젊은 시절 가정교사, 가스검침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 나갔으나, 정치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마쓰시타 정경숙을 지망하였음
- 自修自得은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고 터득하라”는 의미로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도록 하는 교육 방식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음
- 때문에 마쓰시타 정경숙에는 상근교수가 없으며 전반 ‘기초과

정’에서는 외부 강사가 역사, 고전, 경제학, 재정학 등을 가르치지만 ‘후반과정’은 스스로 알아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능력과 역량에 차이가 난다고 함

- 現地現場은 현실문제에 직접 담당자가 되어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라는 의미로 단지 현장에 가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에서 주체가 되어 대안을 찾으라는 의미
 - 예를 들어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환경문제를 뒤로하는 기업, 무책임하게 쓰레기를 양산하는 소비자,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지자체의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내어 실천하라는 것임
 - 즉 선진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현지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라는 것인데 실제로 실습과정에서 터득한 정보와 해안으로 지자체장에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일본의 “제4의 정치세력” 으로 성장

- 최근 일본에서는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 정치가들을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에 이는 “제4의 정치 세력” 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마쓰시타 정경숙에 의한 일본지배가 시작되었다” 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음
- 특히 야당의 각 당에도 출신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다 정권이 연립정권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 이상 -